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왜 딱따구리 노래를 시켰을까?

만공 스님과 진성 사미

만공(滿空) 월면(月面)스님께서는 서산 천장사에서 경허 스님의 친형이었던 태허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하여, 계사였던 경허스님을 시봉하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1937년 마곡사 주지를 지낼 때 조선 총독부 회의실에서 조선 31본산 주지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생사여탈권을 지닌 미나미 총독이 조선불교를 일본불교화 하려고 하자 그 자리에서 호통을 질판 큼 대담했던 스님이셨다.

스님에 대한 일화는 경허 스님 못지않을 만큼 많은데, 덕숭총림 3대 방장을 지내신 원담 진성 스님과 관련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원담 스님의 사미 때의 법명이 진성인데, 만공스님께서는 유달리 진성 스님을 귀여워 하셨다고 한다.

1930년대 말, 만공 스님이 수덕사에 주석하고 계실 때의 일이었다. 당시 만

궁궐 법문 초청에서

사미에게 노래시켜

진리의 의미 일깨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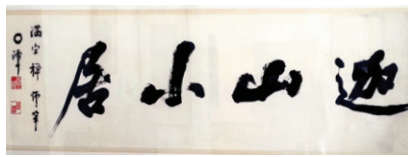
공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어린 진성 사미는 어느 날 사하촌의 나뭇꾼들을 따라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난감 많은 나뭇꾼들에게 속아 딱따구리 노래를 배워서 부르곤 다녔다.

저 산의 딱따구리는 /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 우리 집 명터구리는 /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뜻을 알지 못하는 진성 사미는 노랫말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심심할 때마다 절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마침 만공 스님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듣고 좋은 노래이니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가셨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의 경복궁의 내명부 상궁들과 나인들이 만공 스님을 찾아뵙고 법문을 청하자 좋은 법문이 있다면서 진성사미를 불러 노래를 시켰다. 만공 스님의 정찬에 신이 난 진성사미는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다.

순진한 동자사미가 부르는 노래를 듣는 동안 내명부의 나인들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노래를 듣고만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만공 스님께서는 담담한 모습으로



만공 스님의 친필 '가산소거'

나인들에게 법문을 설하셨다.

“바로 이 노래 속에 인간을 가르치는 만고불력의 직설 핵심 법문이 있소.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딱따구리 법문에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나,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이 노래에서 한낱 추악한 잡념을 일으킬 것이요. 원래 참법문은 맑고 아름답고 더럽고 추한 경지를 넘어선 것이요. 범부중생은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갖추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뚫린 부처씨앗이라는 것을 모르는 멍텅구리요. 뚫린 이치를 찾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삼독과 환상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참으로 불쌍한 멍텅구리인 것이요. 진리는 지극히 가까운데 있소. 큰 길은 막힘과 걸림이 없어 원래 훤히 뚫린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가깝고, 결국 이 노래는 뚫린 이치도 제대로 못 찾는 딱따구리만도 못한 세상 사람들을 풍자한 훌륭한 법문인 것이요”

그제서야 나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경복궁으로 돌아간 나인들이 이 딱따구리 법문을 왕비에게 소상히 전하자 거기에 감동해서 궁으로 진성 스님을 초대해 궁궐에서 노래한 적도 있다고 한다.

스님께서는 1946년의 어느 날 저녁공양을 끝내고, 거울 앞에 앉아 곱게 웃으며, “이 사람 만공, 자네와 나는 70여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세. 그 동안 수고했네” 하시고 앉아서 입적하셨다고 한다.

이 가산소거(迦山小居)라는 글은 많지 않은 스님의 친필 중 하나다. 만공선사필이라고 원담스님이 배관(拜觀)을 해 놓았는데, 지금은 법관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신 강릉 능가사 다실에 걸려있는 글씨다.

능가사의 능가는 스리랑카를 의미하는 말이다.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또 하나의 주처인 스리랑카의 이름을 따라 가산이 보타라가산이라면 능가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자리에 걸려있는 글씨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30년 길목에서 이룬 ‘문화재의 숲’

호림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2013년 4월 27일까지

호림박물관은 1982년 10월 20일, 호림윤장선 성보문화재단 이사장이 출연하고 기증한 기금과 유물을 바탕으로 개관한 사립박물관이다. 30여년 동안 개인이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며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찾아온 호림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소장 유물을 전시한다.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 특별전이 10월 18일~2013년 4월 27일까지 신사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문화재를 전시하는 ‘호림, 문화재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6건, 보물이 41건, 서울시유형문화재가 4건 등 총 250여 점의 전시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 불설불공삼매대교왕경 6권, 금동탄생불, 금동대세지보살좌상 등 다양한 불교 유물들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명사가 선정한 명품”은 명사들이 선정한 호림박물관 소장 명품 30선을 전시한다. 나선화, 옥영정, 유흥준, 윤희이, 윤진영, 이원복, 정재영, 홍림 스님, 지니서, 최안수, 최인수 등 문학, 예술, 학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11명의 명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는 한국미술사 각 분야의 유물 1만 5천여 점 중에서 선별한 것들로 호림박물관 소장품 중 예술적 성취가 높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엄선했다. 특히 유흥준 교수가 추천하는 금동대세지보살좌상, 지장시왕도와 종림 스님이 추천하는 불정최승다라니경,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등이 눈길을 끈다.

“국가가 선정한 국보”에서는 예술적 수준이 높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국가 지정문

화재를 관람할 수 있다. 이들 문화재는 호림박물관에서 개최한 40여 차례의 전시와 국내외의 수많은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으로 국보와 보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윤장선 성보문화재단 이사장이 일본에서 입수한 고려 ‘백지묵서묘법연화경’이 전시돼 주목된다. 이는 윤 이사장이 가장 사랑하는 유물로 40여년간 해외를 떠돌던 것을 재일교포에게 입수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보 179호로 지정된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보물 1541호로 지정된 ‘분청사기삼감모란유문병’ 등의 국보와 보물을 만날 수 있다.

윤장선 이사장 수집 유물

250여 점 관람객 찾아

유흥준 교수, 종림 스님 등

명사 선정 유물 30점 ‘눈길’

‘호림이 사랑하는 보물’에서는 윤장선 이사장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의미가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를 펼친다. 여기서는 호림박물관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최초로 구입해 현재 호림박물관의 초석이 된 ‘청자상감유로연죽문표형주자’를 비롯, 유물에 대한 조연을 구하며 미술사 학자 최순우 선생 등과 주고받은 편지, 호림박물관 과거 전시 사진 및 호림박물관 특별전 리플릿 등도 전시된다. 이밖에도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도 보여준다.

또한, 호림박물관 신림 본관에서 열리는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 특별전이 10월 18일~2013년 4월 27일까지 신사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호림, 문화재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불교 유물 등 250여 점의 문화재가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사진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 금동대세지보살좌상, 금동탄생불

‘감상의 기억’전은 1982년 ‘개관 기념 소장품전’에서 2012년 ‘토기’전에 이르기까지 과거 호림박물관 특별전을 새롭게 구성한 회고전이다. 각 특별전에 대한 설명과 전시별 하이라이트 유물들을 모아 재구성했다. 불교, 토기, 도자기, 회화, 공예, 전적 등 한국 미술 각 분야의 다양한 유물들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지나간 전시의 추억을 다시금 회상해 볼 수 있다.

호림박물관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좋아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유물을 수집하던 한 개인이, 박물관을 만들고 키워가던 열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명사들의 전문가적 안목과 다양한 시각으로 유물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02)858-25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상처 받은 영혼 위로하고자”

헤인 스님 ‘넋전춤’ 공연

10월 31일~11월 5일

헤인 스님의 종이의례예술 넋전이 10월 31일~11월 5일까지 인사동 갤러리31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헤인 스님은 호흡과 수행을 바탕으로 춤사움의 경지를 펼쳐 보인다.

공연은 나무아미타불 소리 명상으로 시작해 진혼곡 사적선, 살풀이춤, 넋풀이, 삼신할미와 저승사자, 넋전춤 등으로 이어진다.

스님은 “넋전춤은 천도 또는 제사의식과 정화의 의미로 공연되던 춤이다. 살풀

이 이전의 의식용 춤으로 종이를 오려 주는 춤이다. 이후 종이 가 향걸음으로 변해 오늘날 살풀이 춤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넋전춤은 살풀이의 원형이라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헤인 스님은 출가전부터 인형극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을 펼쳐왔다. 이후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인형극장 공연 연출, 한국인형극협회 이사, 춘천인형극제 무대감독, 공주민속극박물관 실형위원, 중국연길시 교육위원회 초청 인형극 강연 및 공연, 일본 기후시 초청공연, 대구 지하철 참사 1주기 초청제의공연, 故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 등을 펼쳐왔다.

스님은 “인형극으로 시작해 23년 동안

넋전춤을 취했다. 넋전춤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고요해야 하고 넋전이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넋전춤은 그냥 단순한 춤이 아니라 수행이 동반돼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처받은 넋들을 위로하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도 함께 위로를 전해 주고자 하는 치유의 춤이 넋전춤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연과 함께 열리는 종이 의례예술 전시 지화불(종이를 오려 만든 부처님)전을 선보이며 체험코너로는 치유의 춤 힐링 공연, 종이오리기 등도 펼쳐진다. 010-9619-1299

정혜숙 기자 종이 의례 예술 ‘넋전춤’을 공연하는 헤인 스님



www.minjoksa.org

경전 강의시리즈 출간!

그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염원이었던 본격적인 강의 교재

경전강의시리즈는 다른 책과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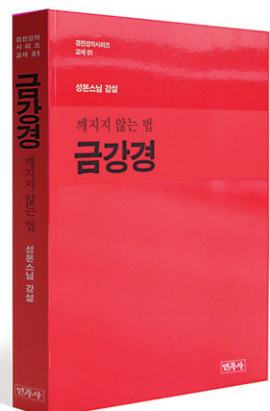
1. 대학승·대강백 스님들의 경전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에 온전히 담아냈습니다.
2. 경전 원문과 그 독음, 번역,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어려운 한자를 골라내어, 그 독음과 뜻을 원문 바로 옆에 달았습니다.
4. 경전 강의를 들으며 직접 필기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5. 한 권만 있으면 다른 보충 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6. 경전 강의를 하려는 선생님께, 경전 강의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재용으로 적합합니다.
7. 실용장제책을 하여 360°로 파악 필할 수 있습니다.

교재 01

금강경

깨지지 않는 법

472쪽 | 25,000원



대학승이신 성본스님의 금강경 강의!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중생심을 끊어버리고 타파하는 경전이다. 성본스님은 절망과 무기력에 지친 현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긍정의 힘을 금강경에서 찾고 있다.

교재 02

유마경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624쪽 | 28,000원



대강백이신 무비스님의 유마경 강의!

유마경은 출가 중심의 편협하고 왜곡된 불교를 철저히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참다운 뜻을 밝히고 있다. 무비스님은 갖가지 고민과 불행 속에서 헤엄치는 현대인의 아픔을 보듬어 공감하는 힘을 유마경에서 찾고 있다.

민중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딩은 1131호 Tel. 02)732-2403, 240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동명 053-02-109450 (메카주: 윤재승)

왕초보 한문 박사되다

김형중 지음 | 288쪽 | 12,000원



불교 한문 초보자를 위한 맞춤 도서

1. 최초의 불교 한문 공부 교재
2. 해석 방법과 문법 소개
3. 경전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소개함
4. 복잡한 그림처럼 보이는 한문, 이제 글자로 보인다!